

반환점 돈 민선 7기 성과와 과제 유 두 석 장성군수

미래 농업 이끌 국립 아열대작물실증센터 유치 '괄목'



장성군이 민선 7기 전반기 2년 동안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등 대규모 국가 사업을 잇달아 유치해 주목받고 있다.

29일 장성군에 따르면 민선 7기 전반기에만 총 33개 사업, 869억4500만원(국·도비 포함) 규모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다지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116억원 규모의 '2020년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공모 사업을 비롯해 70억원 규모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사업비 350억원 전액을 국비로 추진하는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선정 등을 꼽을 수 있다. KTX 장성역 재정차, 필암서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등도 빼놓을 수 없다.

수상 실적도 돋보인다. 2년 간 총 45개 분야 수상을 통해 상사업비 6억7000만원, 시상금 8500만

필암서원 세계문화유산 지정

장성호 수변 100리길 걷기 명소로

KTX 장성역 재정차도 주목 받아

원, 특별교부세 6000만원을 확보했다.

장성군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내세운 7개 분야 65개 공약 중 현재 22개 사업을 마무리했다.

먼저 농업분야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80~85% 상향 지원, 임대농기계 택배운반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완료했다.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입주와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노인성 난청·보청기 지원, 호도관·토방 낮추기 사업, 다목적복지회관 '가족센터' 건립 등

어르신들을 위한 주요 복지 사업도 순항하고 있다.

전국 최고의 걷기 명소로 탐바꿈 중인 장성호에 추진 중인 '수변 백리길 조성 사업'은 현재 호수 전체 34km 구간 가운데 10.1km를 완성했다. 최근 '황금빛 출렁다리'를 개통, 방문객들이 크게 늘고 있다.

장성군은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장성호 수변길 입장료를 장성사랑상품권으로 다시 돌려주는 교환제를 운영한다.

100만 관람객을 돌파한 '노란꽃잔치'의 주무대인 황룡강은 '황룡강 관광 명소화·국가정원 지정 사업'을 통해 2023년까지 오색정원을 조성한다.

주거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도 기대된다. 장성 남면에 도시민 인구 유입을 촉진할 '덕성행복마을'을 조성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는

18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3·4·5차 공공임대주택(총 380가구) 건립을 추진 중이다.

장성의 첫 관문을 확보해 놓을 고려시멘트 공장 부지에 대단위 주거단지 개발과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73억원 규모의 장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해 민생경기 부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엘로우시티 장성은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잇따른 공모사업 선정과 수상을 이뤄내며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앞당겨왔다"면서 "민선 7기 3년부터는 미래 지향적인 비전이 담긴 '새로운 장성' 구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합평 학생들이 '마을역사' 배운다

초·중학생 '해봄' 마을 투어... 옛집·지역민 삶 등 살펴

합평교육지원청은 최근 해보면 마을학교 '해봄'에서 마을주민과 초·중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을의 역사와 발자취를 찾아보는 마을투어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이는 주인공인 학생들과 마을주민이 마을투어를 함께 하며 일문일답을 통해 마을의 형성, 지역민들의 삶, 마을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다.

행사에 참여한 마을주민들은 농촌에서의 생활과 오래된 집, 오래된 것들의 가치, 아름다운 정원과 여러 꽃들을 가꾸는 행복에 대해 학생들과 공유했다.

조운순 해봄마을학교 대표는 "엄마 손에 이끌려 서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온 학생들이 기특하고 대견스러웠다"고 평가했다.

합평마을학교는 마을 특성에 따른 마을형 2교, 학교주도형 2교, 센터형 1교 등 총 11개의 마을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학교와 학교·군·면·지역아동센터·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지역교육협의체를 활성화해 지역사회 배움·돌봄 환경 구축 및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완 합평교육장은 "마을주민들이 아이들을 함께 교육하고 학생들이 마을과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며 이들의 삶을 통해 자신의 꿈을 그리고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마을주민과 청소년들의 소중한 관계맺음이 귀한 거름이 되고 씨앗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합평=황윤학 기자 hwang@kwangju.co.kr

강진산단 입주기업 '소통의 장' 관리사무소 내일 개소

강진군은 다음 달 1일 산단 입주기업 간 소통의 장이 될 강진산단단지 관리사무소의 문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강진군은 개소식에 앞서 강진산단 입주기업협의회 회를 열어 임원을 선출하고 관리사무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관리사무소는 6억9000만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281.5㎡(약 85.18평) 규모로 건립됐다. 운영은 강진산단 입주기업협의회가 맡아 회의 공간이 부족한 입주기업들에 회의실을 제공하고 근로

자의 휴식을 위한 카페를 운영할 계획이다.

관리사무소는 강진산단 입주기업협의회와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거점 공간 역할을 하며 입주기업 간 경영, 기술, 정보교류 등 상생 발전 도모로 강진산단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강진산단 관리사무소를 활용한 입주기업 간 소통으로 갈등 없이 산단이 원활하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화순 '동구리 호수공원' 새 단장 야간 경관 조명·편의 시설 등 확충

화순군은 5억원을 들여 대표 근린공원인 동구리 호수공원을 새롭게 단장한다고 29일 밝혔다.

화순군은 이용객 편의 향상과 노후 목재데크 교체, 산책로 정비, 포토존·기상 안내판·텍스트 조형물 설치, 광장 정비 등 공원 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산책로 주변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 이용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경관 조성사업은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화순의 대표적 도시 근린공원인 동구리 호수공원은 봄철 벚꽃과 철쭉꽃으로 장관을 이루고 여름철이면 아름다운 호수와 산림휴양 공간이 어우러져 전국적으로 힐링 명소로 자리 잡은 곳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화순군이 5억원을 들여 동구리 호수공원을 새롭게 단장한다.

<화순군 제공>

담양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어린이집 등 18곳 운영

담양군은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는 소아기 때 적절한 치료가 지연될 경우 성인기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알레르기 질환의 조기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다. <사진>

담양군은 어린이집 9곳, 유치원 6곳, 초등학교 3곳 등 총 18개소를 안심학교로 지정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안심학교에서는 알레르기 질환(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으로 관리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려워도 긁지 않기, 매일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기, 보습제 자주 바르기, 엄마가 만들어 주신 간식



먹기 등 아토피 예방수칙을 생활화하도록 했다. 더불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식품알레르기 및 영양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김순복 담양군보건소장은 "생활환경 변화와 면역 체계 변화 등으로 알레르기 질환 악화 요인이 증가

함에 따라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안심학교와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알레르기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한 기자 nyc@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모던스타일



Classic

클래식스타일



Mediterranean Sea

지중해스타일



